

# 悲劇的藝術論

## 리어왕에 對한 새로운 해석

洪 起 倉  
기초학과

### <요 약>

리어왕은 가장 복잡한 비극의 하나다. 작품의 복잡성이 그 【작품의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그 복잡성에 유기적 통일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만큼 더 풍부한 체험을 그 작품은 제공할 것이다. 통일의식은 복잡성에서 인어진다. 복잡성이란 세부의 다양성 다층성(多屬性)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세부가 일관된 전체에 종속되는 것이 유기적 통일이다. 이 유기적 통일은 발생학적으로 작가의 의도 즉 작품에 대한 작가의 주제의식에서 생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리어왕의 복잡한 세부를 일관해 있고 전 세부가 종속되는 작가의 의도 주제의식을 분석한다.

---

## The Theory of the Tragic Art A New Interpretation of King Lear

Hong, Ki Chang  
Dept. of Basic Studies

### <Abstract>

W. B. Yeats's sense of tragic life was deepened by his profound understanding of Shakespearean view of tragedies. His sense was a clue to this writing, in which I present a new approach to *King Lear*. Yeats once said: "Among the subjective men, the victory is a daily intellectual recreation of all that exterior fate snatches away, and so that fate's antithesis. We begin to live when we have conceived life as a tragedy." And the heroes of Shakespearean tragedies are the ones who recreate all that exterior fate snatches away. Man's victory, that is, man's greatness lies in his capabilities of that kind of recreation in his tragic situation.

### I. 서 론

리어왕은 셰익스피어의 四大悲劇 가운데서뿐 아니라 그의 全作品 가운데서도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內的 傳記"(inner biography) 상에 있어서 리어왕은 결정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 작품 이전에는 왕이 작품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었으며 이후에도 왕이 주인공이 되는 일이 없다. 덴비(J.F. Danby)는 왕과 관련된 셰익스피어의 주제상의 반전에서 리어왕의 위치를 다음처럼 밝히고 있다.

셰익스피어 史劇의 패턴은 왕의 獄畜라는 주제론 중심으로 발전된다.

이 주제는 비극시대의 작품에 이어진다. 리어왕에서 그의 주제는 가장 충실히 그리고 결정적

으로 취급된다. …… 셰익스피어는 어쩌면 그의 劇的 經歷을 통털어 이 종착기까지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 종착지에 도달하자 그것은 완성인 동시에 결경이 되었다. 더 이상 리어왕 이후에 王이 시해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sup>(1)</sup>

뿐만 아니라 王의 인물단에서도 리어왕은 특이하다. 이전의 시해된 王들은 모두 想像的 善王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모범적인 先王으로도 推定되고 추앙 되어왔다. 이에 반해 각들에 등장하기 이전의 리어왕은 착한 임금으로서 凡人과 다름없는 인물이었다. 덴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시해된 王들은 推定상의 善人들이었다—저, 램릿의 父王이나 던컨같은 모범적인 王들. 리어왕은 반면에 선한 임금이다. 그러나 그는 이상적 인물이 아니라 부패, 실수, 구원, 재생등이 있을 수 있는 인간상의 인물이다.<sup>(2)</sup>

리어왕의 인간성에 대한 이러한 고찰은 본논고의 논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극적 예술의 핵심은 비극적 인간이 오히려 그 비극성을 극복한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완전한 인물이라면 애당초 비극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극의 주인공이 왕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왕이 비극적 인물이라는 사실은 여기까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왕이란 그 지위와 권위에 있어 특수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왕의 존재는 私的인 범주를 벗어나게 마련이다. 왕의 영향력은 국가와 백성 전체에 파급된다. 이런 의미에서 왕은 가치관의 대표며 질서의 상징이다. 王權專制國이라는 古代國家에서 이것은 현대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진실이다.

왕의 결점은 국가 전체의 결함으로 확대 되어 질서의 붕괴와 가치관의 타락 상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이 리어왕의 비극적 현실이다. 리어왕 자신이 자신의 비극을 유발하는 것이며 그것은 개인적 범주를 벗어나 국가 전체의 비극을 초래한다. 리어왕이 그 어느 비극보다도 보평성을 획득하는 이유이다. 질서와 가치관의 대표인 왕이 인간적 결함을 가짐으로서 질서가 붕괴되고 가치관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 리어왕의 비극의 발단이다. 이것은 이 작품의 운동방향을 암시한다. 리어왕은 그의 인간적

결함을 극복하게 되고 붕괴된 질서와 타락한 가치관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작품이 진행될 것은 짐작할 수 있다.

긴자는 작품의 이러한 운동비전에서 작가가 시도한 점이 무엇인가를 즉 그의 주제의식을 분석하다.

희랍비극에서는 주인공이 맹목적이고 독자비난 운명에 능락되어 비극이 성립되기 때문에 古典悲劇에서 우리는 인간의 왜소성만을 보게 된다. 新부희랍 비극의 詩人들이 연단의 공포의 정서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여 카타르시스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비극 자체의 결함같은 어떤 수 없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는 비극의 난단인 주인공 자신의 인간적 결함에서 생기고 비극의 주인공은 자신의 비극적 체험을 통하여 그 결함을 극복하여 보다 완전한 인간상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적 승리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비극적 체험을 수행하는 고독하고 비참한 주인공한테서 우리는 오히려 인간의 위대성, 인간완성에 대한 가능성을 의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이츠는 “비극적 기쁨”을 말했다. 비극의 주인공은 인간의 위대성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브래들리 (A. C. Bradley)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받는 인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이념을 포함하는 듯 싶는데 만약 그 이념을 발견시키면 우리의 비극적 인생관은 일반하고 말 것이다. 비극적 세계를 표현된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 모든 실수와 죄악과 선배와 비참과 낭비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적 세계는 궁극적 실재가 아니며 전체적 실재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할 때 비극적 세계란 환각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비극적 사실들은 그 전체 내의 정당한 위치에 놓고 볼 수 있다면 그 비극적 사실들은 물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변모되어 엄밀히 말해서 비극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고통과 죽음은 별 의미가 없고 영혼의 위대성이 중대한 것이 되어 영웅적 정신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파탄에서 살아남은 조심스럽고 잘 사는 소인들보다 더욱 우리의 사랑을 받게 됨을 발견할 것이다.<sup>(3)</sup>

(1) J. F. Danby, Shakespeare's Doctrine of Nature, p.141.

(2) Ibid., p.165—7.

(3) A. C. Bradley, Shakespearean Tragedy, pp.324—325.

세익스피어 예술의 위대성, 특히 비극의 위대성은 고전비극에서 운명에 속박되어 있던 개소한 인간을 운명으로부터 해방시킨데 있다. 그렇지만 세익스피어가 운명이나 같은 절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의 천재적 통찰력은 인간과 신대자의 관계를 사회의 관계로 보았던 것이다. 인간의 해방은 그리니까 대입관계에서의 독립을 남기기 보다 和解(Reconciliation)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승리다. 인간이 천대자의 대등한 지위로까지 승격된 것이다.

리어왕은 비극적 기쁨을 통하여 인간적 비극을 극복하고 진배가와 화해하는 세익스피어가 강조해 낸 위대한 인간상의 불변한 이미지이다.

## II. 질서의 붕괴와 가치관의 상실

리어왕의 극적 구성은 지극히 복잡하다. 세계문학사상 이 작품같이 복잡한 비극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복잡성이 한 작품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복잡성이 소화된 통일을 내포하지 않으면 그 작품은 완전 실패작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의 방편으로서 내용과 형식을 구분할 때 한 작품의 복잡성은 구조의 복잡성과 의미의 다층성을 말한다. 리어왕이 하나의 문학작품으로서 위대한 걸작이 된 것은 그러한 구조의 복잡성과 의미의 다층성이 유기적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리어왕이 세 글은 앞에 놓고 소위 “사랑의 재판”(love trial)을 여는 장면과 더불어 극은 시작된다. 리어왕은 세 딸과 두 사위, 덕내년의 남편 후보인 프랑스 왕과 버어컨디공작, 그리고 켈트 및 시종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 사이 지금까지 내 가슴 속에 품고있던 의향을 말할 것이다. 그 지도를 좀 따오 우린 나는 내 왕국을 三分히 놓았다. 나는 이제 모든 정치적 근심과 국사를 이 늙은 몸에서 힘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양하고 흥가분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여생을 보낼 준비를 할 결심이다. 사위 콘월공과 또 사랑하는 오윤버니공에게 밀하겠는데 나는 지금 각 딸들에게 결혼제산을 발표하겠다. 이는 다만 후일의 불화의 씨를 없애려는 것이다. 프랑스 왕과 버어컨디공작은 내 막내딸의 마음을 사려고 서로 경쟁하며, 벌써 오랫동안 궁중에 머물러 왔는데 오늘 여기서 대담은 두께 될 것이다. 자 편

들어 나는 이제부터 국가의 영도도 국가의 번잡도 모두 벗어버릴 결심인데, 대체 너희들 중 누가 세일 이 아버를 사랑하리지 않려다오. 비게 대한 사랑과 호성이 제일 많은 나에게 나는 백인 큰 영도를 주겠다. (I i, 37~55)

복잡한 이 자리가 그 말은 단순하다 리어왕이 시 말의 자기에 대한 지탄을 誤判하는 것이 이 비극의 모든 밑천인 것이다. 그리함 이 작품에서 사랑의 재판이 갖는 의미는 심각하다.

위에 인용된 리어왕의 말에서 그가 꼭두각스 三分하고 왕권을 禪讓하겠다는 길은 현대인에게서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서문에서 지적한대로 왕은 신서의 상징이다. 臣民이 왕에게 거당한 복종권세를 지키는 국가질서는 왕이 군림하고 있는 한에서 존속될 수 있다. 王이 신위하드래도 新王은 前王에 대해 최소한 等價人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그렇드래도 질서는 최소한의 중요성을 감당하는 것이다. 리어왕이 꼭두각스 三分하고 세 딸에게 왕권을 선양하려는 그의 행위는 신서의 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글로스터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는 길서가 파괴된 리어왕의 현실을 요약한다.

사랑은 식고, 친구는 배반하고 형제는 의가 간리고, 도시에서는 반란이 일고, 지방에서는 불화가 생기고 궁정에서는 반역이 일어나고, 부자의 인연도 끊어질다. ……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은天道에서 벗어난다. (I ii, 115~121)

가치관을 상실한 가치; 이 다락한 사회현실이다. “사랑의 재판”에서의 리어왕의 誤判은 가치관의 다락 顛例를 상징한다.

그는 사랑을 마치 物量의 大小多寡를 측정하듯 측정할 수 있다는 일견 지극히 합리적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기계적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다. 靈的 가치의 완전 부정이다. 사랑의 실재는 기계적 합리주의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그것은 靈的 세계에 속한다. 사랑의 측정은 물질주의적 합리주의를 초월하는 마음의 눈을 요구한다.

리어왕은 말을 사랑의 척도로 삼고 있다. 말은 인간의 교통(communication)수단으로서 最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척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말에 대한 인식이 사랑을 物量의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처럼 기계적 합리주의에서 나온데에 문제가 있다. 그는 진정한

만과 허위의 말을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실은 호도하는 誇張된 말은 좋아한다. 말의 誇張은 物量의 크고 많음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극대적인 물질주의적 합리주의다.

이른 실재를 표현하는 인간의 최선의 도구나. 동시에 다른 더위의 위선을 감추고 진실은 가장하는 데 가장 편리한 도구가 된다. 리건과 거니얼은 더위를 숨기고 진실을 가장하기 위해 말을 사용했고, 코닐리어는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 말을 사용했다. 이미 가치관은 상실한 리어王은 진실과 허위를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코닐리어에게 허위를 강요한다. 그러나 코닐리어는 자신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父女관계가 끊기는 것도 감수한다. 그 여자는 손해를 초월한 영원한 가치의 수호신같은 인상들 준다.

사랑의 측정이 물질주의적 합리주의를 초월한 마음의 눈은 요구하듯 말의 측정도 그더한 마음의 눈은 요구한다. 충신 켄트가 “혜하, 달리 잘 보십시오.”(I. i, 160)라고 충고할 때 그는 리어王에게 그러한 마음의 눈을 뜨라는 말이다. 육체적 눈은 떠있지만 실제와 가치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은 멀어지기 때문이다. 리어王이 가치관 즉 마음의 눈을 가진 코닐리어와 충신 켄트를 추방한 행위는 그 자신의 가치관 상실을 상징하며 동시에 사회 전체의 혼돈을 암시한다.

從 플롯에서 클로스터가 서자 에드먼드의 간계에 수아 무고한 적자 에드가를 추방하는 행위도 동일한 의미론 갖는다.

### Ⅲ. 인간성의 타락

다비(J. F. Danby)는 리어王에 나오는 인물은 二種으로 화연하게 구분하고 일군은 ‘자비한 성품’(benignant)의 인물, 다른 일군은 ‘사악한 성품’(malignant nature)의 인물이라고 본다.

자비한 성품의 특징은 가치관의 상실과 愛的 가치의 부결이다. 이들은 도덕과 법률과 자연까지도 가치의 도구로 분화되고 생각한다. 오직 자기들의 자기중심적 목적 욕망을 달성하는데 쓰이는 도구로 파악한다. 권도 자기들의 그러한 도구인 뿐이다. 에드먼드의 다음과 같은 독백은 그들의 철학을 대조한다.

가인이여, 그때는 나의 이성이여. 그때의 법칙에 나는 분사한다. 무슨 이유로 귀찮은 습관에

숙박되어 상속권을 박탈당해야 한단 말이냐. 그보다 일 두서너 달 늦게 낳았다고 해서? 왜 사생아야, 무엇이 서자라는 거지? 육계의 권징도 잘 잡혀있고, 마음도 고상하며, 체격도 멋있다. 왜 서자의 낙인을 찍는거지? 어째서 서자지? 비친하다니 무엇이 비천해? 자연의 욕망을 못이겨 남근대 태어난 몸이니 체력이든 기력이든 필등한 것이 낭언하다. 재미있고 김빠진 고단한 작자로서 태어난 바보와는 틀린다. 자, 그러니 적자인 에드가형, 당신의 재산은 내가 가지이겠어, 아버지의 사랑은 서자인 이 에드먼드에게 차별이 없지. 적가라, 좋은 막이군! 자, 적가 형님, 이 견지가 뜻대로 성공년 하면 서자인 에드먼드가 직자를 누르게 된디오. 점점 성공대 간다. 자, 제신이여, 서가를 위해 분기하소서. (I. ii, 1~22)

이 독백은 에드먼드가 형 에드가를 포함하는 편지를 써놓고 아버지를 속인 궁리를 하면서 한 말이다. 이 독백의 논지는 합리적인 것 같다. 자기의 수려한 육체, 우수한 지성, 다월한 경력을 말하면서 습관과 법률에 의해 개인의 그러한 능력 발휘가 저지되고 있음을 지적할 때 우리는 그에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곧 그의 본성이 들어난다. 법과 습관의 부정적인 면의 비판까지는 합리적이지만 그 비판이란 결국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구실임이 밝아지는 것이다. 그는 뜨가기의 지성의 우월은 믿으면서 그 지성도 단지 자기의 부당한 목식, 세속적 욕망충족을 위해 인간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I. iii, 195~200)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미 리어王이 사랑의 재판에서 보여주었다. 그 재판에서 리어王의 약점은 아웅하며 자기의 비책을 얻었던 두 딸 리건과 거니얼도 그의 같은 사고방식은 갖고 있다. 이들의 지성과 이상은 자신들의 자기중심적 답습은 충족시키는데에는 너무나 넉넉 달카롭다. 사랑의 재판이 끝나 뒤 이들은 두어서 어떤 모의를 한다. (I. i, 286~312) 이 둘은 리어王의 망령을 마하고 있다. 이제 자기 가장 사랑하던 어머니만을 추방한 행위는 그 어머니를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둘도 지극히 합리적이지만 곧 그들은 그 합리주의의 구실로 리어王을 희대하여 그의 권위를 박탈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소빨도 단검에 베렸다고 무슨 수를 빨리 써야해” 하고 거니얼은 말한다. 이 둘이 모의를 리어王을 추방하려는 것이다. 백명의 시군

은 거느리고 격월간으로 두 번 집에 거처하기로 한 자기들의 아버지를 학대한다. 그리고 그들은 리어왕의 노망을 구실로 자기 합리화를 한다.

“늙은이는 다기 어린애로 돌아가는 것”(I.iii, 19)이니 비의론 맞춰주어서는 안 되고 엄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거니털은 하인에게 리어왕을 못산게 풀라고 명명한다. 그여자는 리어왕에게 이제 나이도 많이 갑수셨으니 사리판단을 잘 하셔야”(I.iv, 261)하지 않겠느냐면서 예의없고 난폭한 시종들을 줄여 “늙으신 아버님께 맞고 부별심 있는 사람간을 남겨”(I.iv, 272~3)둘 것을 요구한다. 이에 격분한 리어왕은 거너릴에게 “배은망덕한 년”(degenerate bastard) 이라고 욕을 퍼붓고 둘째딸 리건에게 가졌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리건은 거너릴보다도 더 사악한 딸이다. 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리건은 아버지가 오는 날 밤에 집을 비우고 클로스터의 성으로 가버린다.

리어왕이 성까지 찾아왔을 때도 리건과 그의 남편 콘윈은 성안으로 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리어왕이 보낸 사자 켄트를 죽채 채우기까지 했었다.

리건의 자기합리화는 거너릴과 동일하다. “아버님, 당신은 연단하십니다. 연세로 보아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러니 부별심 있는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셔야죠”(II.iv, 148~152) 이렇게 교활한 말로 리어왕을 거절한다. 이때 거너릴도 합류한다. 리건은 리어왕에게 돌아가서 거너릴과 죽을 때까지 살거나 그것이 싫어서 자기 집에 울려댄 시종을 다 해고하라고 말한다.

도대체 백명의 시종을 거느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고 두 딸은 리어왕에게 질문한다. 이미 자기들의 궁중에 시종들이 있고 그들이 리어왕의 시종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신의 시종을 거느릴 필요가 있는냐는 것이다. 리건이 한명인들 무슨 필요가 있는냐고 따질 때, 리어왕은 “필요를 따지지 말라”(II.iv, 268)고 반박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달을 듯하다.

여기서 리어왕의 처지가 상징적이다. 사랑의 재판에서 그 재판을 주재하고 코딜리어와 켄트를 추방했던 리어왕이 이제 두 딸 거너릴과 리건한테서 종자의 수를 놓고 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록스와 하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幕들(I.iv; I.v; II.iv)의 주된 문제는 리어왕이 거느릴 종자의 수에 대한 논쟁이다. 이 幕들은 일막 일장의 보완으로 읽어야 한다. 일장에서 리어왕은 딸들과 그들의 사랑의 양을 놓고 논쟁을 벌였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는 부당한 계산을 강요했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잘못 쓴 산술의 덕을 보았던 바로 그 딸들한테 부당한 계산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딸의 사랑을 평가하려면 자기가 제시한 평가기준과 다른 기준이 필요했었다. 마찬가지로 백명의 종자에 대한 그의 요구도 합리적 필요의 기준과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실체는 비합리적 수단에 의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어왕은 종자의 상징적 가치라 할 것을 변호하여 “필요를 따지지 말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 말은 이 분제의 장엄한 요약이다. 코딜리어는 리어왕에게 “나는 내 사랑을 따질 수 없어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sup>(4)</sup>

리어왕은 마침내 두 딸에 의해 추방당한다. 캄캄한 밤중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황야로 리어왕은 쫓겨난다.

이것은 코딜리아의 추방과 같이 여러가지 의미를 띤다. 코딜리어의 추방은 질서의 붕괴와 가치관 상실의 조짐이었다. 리어왕의 추방은 완전한 질서의 붕괴를 상징하며 가치관의 완전 타락을 의미한다. 인간사회는 사악한 성품의 거너릴과 리건이 대표하고 있다.

이 카오스의 세계로부터 리어왕이 추방당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광명을 향해 진일보했음을 암시한다. 그 자신이 추방됐던 코딜리어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 Ⅳ. 인간의 비극성과 셰익스피어의 역할

인간사회로부터 추방당한 리어왕은 광대와 켄트만을 데리고 캄캄한 한! 숲에 황야에서 홀로 폭풍우와 싸우고 있다. 그 모습은 전하는 기사는 리어왕을 가리켜 “인간의 작은 세계”(little world of man)라고 말한다. 광폭한 대자연의 파괴력에 비하여 리어왕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흔히 황야의 폭풍이 리어왕의 정신적 격동을

(4) Brooks and Heilman, Understanding Drama, p.655.

상징한다고 해석해 왔지만 작가의 강조는 그 보다 인간의 나약성, 왜소성과 자연의 위력, 냉혹성의 대조에 있다. 비록 리어王이 자연의 광폭에 탄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또 자연과 신에 대해서 도전하는 어조를 사용하지만 그는 “춥다고 느끼는 것이다”. (I am cold myself. III. ii, 69)

자신의 나약성에 대한 인식은 곧 이웃(바보)에 대하여 그리고 나아가 동포에 대해 자비심을 불러 일으킨다. 리어王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대를 보고) 들어가, 바보야. 먼저 들어가 잠 잘 집도 없는 가난뱅이들—, (광대를 보고)애, 배가 먼저 들어가라 나는 기도를 들인 뒤 자겠다 (광대 들어간다) 헐벗고 불쌍한 가난뱅이들아, 지금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 이런 무자비한 폭풍우에 시달리며 은신할 집도 없고, 굶주린 배를 안고, 구멍이 난 누더기를 걸치고 어떻게 이런 비바람부는 밤을 지새우느냐? 아아, 나는 아직까지 너무도 무심했구나! 호사스런 거만한 자들이 좋은 약이니 이런 것을 경험해 봐라. 넘고 치는 것을, 그들에게 나눠줘서 천도의 공평함을 증명하라. (III. iv, 26~36)

등골에서 허리에 담요 한장만 두른 에드가가 광인을 가장하고 나올 때 리어王은 에드가가 바로 자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에드가를 가리켜 “불쌍한 벌거숭이의 두발 짐승”이라고 한다.

무덤속에 들어가는 것이 낯졌구나, 이런 비바람을 알몸뚱이로 맞느니, 사람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가? 저절 봐라. 너는 누에한테서 비단도 얻지 못했고 짐승한테서 가죽도, 양한테서 털도 사향묘에게서는 사향도 얻지 못했구나. 아, 여기 세 사람은 가장을 해서 옷을 입고 있는데 너는 날 때 그대로구나. 인간은 옷을 벗으면 너같이 불쌍한 벌거숭이의 두발 짐승에 불과해! 버려라 버려, 이런 옷을랑 애, 이 단추쯤 풀어라. (리어왕은 옷을 찢으며 벗는다. (III. iv, 105~114)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폭풍우가 대표하는 자연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세계인 것이다. 리어王은 심오한 비존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을 훨씬 초월하는 어떤 질서가 있고 이에 대하여 인간의 실존은 그 가상을 벗기면 “불쌍한 두발 짐승”에 불과한 비극적 존재라는 진리를 리어王은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느끼기 시작

하면서 그는 자기의 두 딸의 배운과 패덕은 더욱 격렬하게 증오하고 규탄한다. 그는 아직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 물론 그는 그 패덕의 두 딸이 자기 몸에서 나왔고(III. iv, 76~7), 자기 손으로 음식을 떠먹인 딸이며(III. iv, 19~16), 자기 살속의 병이며 자기의 색은 피가 흘러 나오는 흰데고 종기며 부어터진 종기라는 것(II. iv, 225~228)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가슴에 무엇이 자라고 있길래 그토록 잔악한 마음을 만드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III. vi, 83). 리어王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리건을 해부하라”(III. vi, 80)고 말한다. 리어王은 이제 가상과 실제 허위와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마음의 눈을 회복하고 있다. 그의 집념은 이 실재를 가리고 있는 가상의 층을 찢어 발기려고 한다. 가상의 상징인 옷을 입지 않은 에드가를 보고 인간의 실존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리어王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벗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미쳐버린다. 狂中에도 리어王은 두 딸의 배운과 패덕에 대한 복수심은 격렬하여 그는 두 딸에 대하여 황야에서 상상적 재판을 한다(III. vi, 48~86). 여기서 그는 리건을 해부하여 패덕의 실재를 밝히려 하고 한다.

리어王이 딸들에 대하여 재판하는 장면이 세번 있다. 첫째는 一幕一章에서의 사랑의 재판, 둘째는 자기가 재판을 열고 재판장이 되기보다는 두 딸에게 재판을 받는 편이지만, 二幕四章에서의 종자의 수를 놓고, 두 딸을 재판했다고 할 수 있는 장면, 그리고 셋째는 두 딸의 배운과 패덕에 대한 상상적 재판이 있다. 이 세 정면을 통하여 리어王의 정신적 변화를 알아 볼 수 있다. 첫째 재판에서는 가상과 실제, 허위와 진실에 대한 통찰력, 마음의 눈이 없었다. 둘째 재판에서는 사랑의 재판에서 범한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만 마음의 눈은 아직도 뜨지 못했다. 그러나 세번째 재판에서 리어王은 마음의 눈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가상과 허위를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것은 심한 역설이다. 미쳐버린 리어王은 마음의 눈을 뜨고, 미치기 바로전에 그 서팡이 비쳤으며, 가장 건전한 정신상태에서 그의 마음의 눈은 완전히 멀어 있었던 것이다. 클로스터의 경우는 더욱 아이로닉 하다. 두 눈알을 뽑힌 뒤에 비로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두 눈이 멀정하게 떠 있을 때는 걸려 넘어졌었다.”(IV. i, 20)고 클로스터는 말한다.

리어王에서 작가는 역설과 아이로니와 상징주의를 고도로 구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어王은 가장 난해한 비극의 하나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러한 난점을 이해하면 또 가장 풍부한 체험을 주는 작품이다.

상상적 재판을 끝낸 뒤 리어王의 정신적 격동은 자지러져 잠이 든다. 그리고 켄토에 의해 코딜리어가 있는 도우버로 운반된다. 이 수면은 글로스터의 假想的 자살과 相通한다. 그러나 부복스와 하일만이 지적한대로 리어王의 狂症은 “견딜 수 없는 실제로부터의 도피가 아니고 그에 대한 자성의 격화”<sup>(5)</sup>였기 때문에 리어王의 수면은 글로스터의 자살행위와는 의미의 차원이 다르다. 글로스터의 자살시도는 단순한 도피에 불과한 것이다. 가상적 자살에서 살아난 글로스터와 수면에서 깨어난 리어王의 행동이 이것을 증명한다. 그 후 이들은 일종의 靈的, 정신적 재생에 도달하지만 글로스터의 재생은 에드가의 “속임수”에 의해 가능해진다. 스스로 체험을 통하여 실제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지 못한다. 반면에 수면에서 깨어난 리어王은 그 狂症이 더욱 격렬해지고 그의 통찰력은 인간과 세계의 실재를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투시한다.

하, 흰 수염이 난 거너털이구나 그것들은 개처럼 앙랑렸지 검은 털도 나기 전에 흰 수염이 낀다고 말했던 것들아. 내가 말하는 것이면 하나에서 열까지 네 비하고 비위를 맞췄지만 그것은 성서의 율법을 어진 짓거리였다 말야, ... 그것들의 말은 믿을 수 없어, 그것들은 나를 보고 전능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빨간 거짓말이고 나 역시 학길에 걸리지 않을 수 없거든(IV. vi, 97~107)

그가 일찌기 이러한 통찰력을 가졌더라면 코딜리리를 이해했을 것이고 그의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사악한 두 딸의 과장 뒤에 숨은 잔악한 허위와 진실한 막내딸의 순수한 말이, 합축하는 의미를 간파했을 것이다. 이제 리어王의 상상력, 마음의 눈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그는 세계의 실재를 꿰뚫어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아라, 저 헛웃음치는 부인들. 얼굴을 보면 밑에까지 눈처럼 순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숙한채 시치미를 떼고, 색경이라는 말만 들어도 더럽다고 얼굴을 찡그리지만, 음탕한 짓을 하는데

는 암내난 고양이나 들에서 기른 말보다 음란하지. 허리 위만 여자가 그 아래로는 괴물이야, 단지 허리까지만 신의 영역이고 그 밑은 모두 악마의 것이지.(IV. vi, 109~134)

이미 3막 4장에서 선악의 공존, 자기의 악독한 두 딸이 자기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었다. 이제는 그것이 깊어져 세계의 실제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있다. “허리 위는 신의 영역이고 그 아래는 악마의 영역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래를 허위와 가상으로 감춘다. 옷은 허위와 가상의 상징이다. 그 옷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세속적 권위를 얻고 그 두터운 허위의 옷을 입은 악은 심각하다. “누더기 옷을 입으면 사소한 악도 드러나지만 두터운 옷은 모든 것을 감춘다. 죄에 황금의 갑옷을 입히면 법의 날카로운 창날도 찌르기는 고사하고 창끝이 부러지고 만다”(IV. vi, 168~9). 이 말은 광증이 극도에 달한 리어王이 오히려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역설의 극치를 보여준다. 에드가의 말대로 “狂中理”(Reason in madness)다.

동시에 인간의 비극성은 바로 그러한 역설속에 있다 실재를 보는 사람은 추방되고 잦은 고난을 겪는다. 켄트, 코딜리어, 에드가, 리어王의 비극적인 생을 우리는 보아왔다. 우리의 정의감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이 작품의 의미는 너무나 심각해서 정의감이 개입되지 않는다.

선악의 공존질서, 이것이 리어王이 도달한 인간의 실존, 세계의 실존에 대한 비존이다. 선이 신의 섭리라면 악도 그 섭리의 일부분이다. 인간의 비극은 필연이다. 우리는 참을 수 밖에 없다. 리어王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대는 참아야 하네 우리는 태어날 때 울지 않는다. 그대도 알다시피 공기뉘새를 말자마자 우리는 앙앙 울어대지. .... 태어날 때 우리는 이 거대한 바보들의 무대에 태어나게 된것을 우는 거야.(IV. vi, 181~187)

참는다는 것은 순응의 섭리다. 악도 신의 섭리에 속한다는 것을 알면 인간은 인내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실존, 세계의 실재는 인간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절대적 진리의 일부분으로 리어왕은 인식한 것이다.

(5) Brooks and Heilman, Understanding Drama, p.656.





**References**

BRADLEY, A. C.,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1949)

CHARLTON, H. B.,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1963)

DANBY, JOHN, F., *Shakespeare's Doctrine of Nature*, Faber and Faber, London (None Date)

DOWDEN, EDWARD, *Shakespeare: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New York (1960)

RIGHTER, ANNE, *Shakespeare and the Idea of the Play*, London (1962)

RIBNER, IRBING, *Patterns in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1960)

CHOI, JAE SUH, *The Theory of Shakespeare's Art*, Seoul (1963)

CAMPBELL, LILY, B., *Shakespeare's Tragic Heroes*, Methuen (1963)

CLEATH BROOKS AND ROBERT R. HEILMAN, *'Understanding Drama*, New York (1948)

MACLEAN, NORMAN AND 5 OTHERS, *Critics and Criticism, 1933 - 60*, ed., R. S. Crane (1952)

YEATS, W. B., *The Collected Poems*, MacMillan, London (1969)